

2019 강림절을 맞이하여

함은혜 (주3창)

최근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문을 닫았다 다시 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20대 때는 미니홈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의 인스타 정도?! 저 역시도 상당량의 사진과 글을 거기 두었는데, 다시 접속 가능하다는 소식에 오랜만에 들어가봤습니다... 아시죠? 자신의 고삐 없는 과거와 마주한다는 게 얼마나 오글거리는 일인지...ㅎㅎ;;; 그러다 이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해요. 성탄절을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어요. 한때는 온전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해질 수 있을까, 온전해지기 위한 노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게 돼요. (중략) 그래서요 하나님, 저는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께 뭘 드릴까 고민하는 건 그만 두고, 배짱 좋게, 낫짝 두껍게, 저한테 선물 달라고 조르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순수한 믿음을 주세요. 이것저것 재거나 따지지 않고, 무식할 정도로 우직해 보이는 진짜 순수한 믿음 주세요.”

2010년 12월에 쓴 글이었는데, 저 때의 마음이 기억났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허공에 던진 것처럼 메아리도 없고,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음을 절감했던... 어차피 이럴 거 왜 열심히 사나 싶고, 억울했고, 그래서 인생 진짜 막 살아버릴까 싶었던 그 시절, 간절함을 다해 하나님께 띄운 성탄 편지였습니다.

그 때의 감정들이 속속들이 떠올라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생각났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도,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저를 위로해주셨고, 기도도 들어주고 계셨더군요.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있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고, 생각지도 못한 이들에게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엉겨 붙은 일들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한 결말로 이끌어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비유해야 좋을까요. 식당에서 라면을 먹고 나 몰라라 나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신 느낌?! ㅎㅎ

하나님은 정말 참 사랑이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귀에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바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하나님다운 방식으로, so 하나님답게, too 하나님답게, 끈질기게 바라보시고 사랑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시면서 말입니다.

강림절 가정예배키트를 받아 들며, 고운 초 색깔이, 예쁜 별 그려진 예배지가 하나님처럼 곱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몇 주 지나 강림절의 대미를 장식할 성탄절이 오면, 몸으로 쓰신 하나님의 사랑의 연대가 다시 한 번 시작되겠지요.

연도가 바뀌어도 실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 교회력도 매년 반복이지요. 하지만, ‘새로운 한 해’라는 시작점을 주셔서 마음가짐을 바로잡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좋고, 그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여서 더 좋습니다. 정말 so 하나님다운, too 하나님다운 기회제공인 것 같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신 없는 해였을 수도, 평안했을 수도, 힘에 부쳤을 수도, 감사가 넘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삶도 가볍지 않았고, 매 순간 내리는 결정의 무게들을 지나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소란한 마음에 휴식과 위안을 주실 테니, 강림절 기간 동안 부디 평안하시기를... 사랑합니다 배화.

배화교회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

주보 제 2019-49호

2019.12.08

강림절 제2주

빛으로 오신 예수님



*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례송 *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로의 부름 * 다같이

인도자 :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회 중 :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함께 :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찬양 * 다같이 (인도: 강영진 간사)

예수 좋은 내 친구 / 시간을 뚫고

대표기도 허경식 집사

기도송 다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교회소식 및 아이들 축복기도 김영석 목사

봉헌 우리교회를 위한 기도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맘에 미움 없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2.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남편을 존경 아내를 사랑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주님의 가정 삼으소서
3.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봉헌기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지미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사사기 8장 22-35절

22 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23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24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25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겹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26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천칠백 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돌렸던 사슬이 있었다라 27 기드온이 그 금으로 예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울무가 되니라 28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사십 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29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30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칠십 명이었고 31 세겔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32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으매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33 기드온이 이미 죽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35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김영석 목사** **착각이 만든 결과**

파송찬양과 축도* **내 구주 예수님**

지난주 통계

인원	84명
헌금	십 일 조 강영진 권태성 김은철 성임숙 김재홍 김선민 서민옥 이아름 함은혜 허경식 감사헌금 강문정 김재홍 김선민 이동근 이은미 이병홍 함은혜 허경식 주일헌금 김미연 김선아 김수현 김영석 홍병진 김용석 유재연 김재홍 김선민 박세연 박진성 서하랑 송민혜 이병홍 임대혁 임아인 임중현 정우석 최정용 추세영 태미선 허경식 함은혜 허한나 무 명 목적헌금 성임숙 허경식 함은혜

2019 **강림절**

빛으로
오신
예수님



#jasmine

진정한 사랑에 대한 소망
사랑의 기쁨을 상징하는
자스민 향초에 불을 붙입니다
자신을 향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진심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두번째 가정예배]

2019. 12. 08 ~ 15

- 일일호떡판매** 청년부에서 호떡과 오뎅을 판매(카카오페이, 토스 가능)합니다. 모든 수익금은 서울역 노숙인교회의 선물구입에 사용됩니다.
- 겨울서툰은행** 차량이용하실 분들은 신청해주세요. 차량은행봉사자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이용신청 및 봉사자 모집 문의: 송민혜 전도사)
- 2019당회** 한 해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내년의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당회 후, 개인 프로필사진(멤버쉽 가입용)을 찍어드립니다. 집사 보고서 및 헌신서는 10일(화요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역자부임** 초등부에 허한나 전도사가 부임했습니다.
- 성탄절예배** 25일 성탄예배에 성례전(세례와 찬찬)이 있습니다. 식사 후, 서울역 노숙인교회에 방문하여 도시락과 선물을 배달합니다.
- 배식 및 정리** 오늘은 3속(애플타이저), 다음 주는 4속(후시던)입니다.

그들도 따뜻한 성탄절
#청정커피시즌2 #세앗기득 #정성기득

성탄절 유아세례
부모교육 12/15, 22 (2회)

유아세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겠다는 부모의 신앙 결단과 공동체의 축복으로 이루어집니다.

• 대표기도

12.15	조진영	12.22	조진철
-------	-----	-------	-----